

# “여배우 셋이서, 이글이글 에너지 불태웠죠”

“김선영 연기 파워 ‘지하 암반수’  
장윤주 맨발로 덤비듯 뛰어들어  
폭력 가정서 자란 세자매 이야기  
여성배우들이 일궈낸 값진 작품”

“여자 배우들이 불어가지고 이글이글  
하게 연기하고 이런 거 개인적으로도 보  
고 싶었는데 그런 게 잘 없잖아.”

배우 문소리(47)는 최근 내놓은 책 ‘세  
자매 이야기’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.  
27일 개봉하는 영화 ‘세자매’(제작 영화  
사 업)의 시나리오와 제작현장 풍경 등  
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연출자 이승원 감  
독과 함께 펴낸 책에서 그는 “이글이글  
이라는 게 품 잡고 이글이글 이런 거 말  
고 연기 에너지를 뽐어내는 그런 거”라  
고 부연했다.

실제로 18일 첫 시사회로 공개한 ‘세  
자매’는 이글이글한 에너지로 가득하다.  
문소리는 김선영, 장윤주와 함께 폭력적  
가부장의 아버지에게서 자란 세 자매  
의 이야기를 이끈다. 겉으로는 별 문제  
가 없어 보이지만 결코 평화로울 수 없  
는 내면에 시달리며 이를 신앙에 의존해  
견뎌내려 이중적 면모를 감추고 살아가  
는 둘째 딸이 그의 몫이다.

그러는 동안 그는 어린 시절을 돌이켰  
다. 아버지는 “여자가 안경을 쓴 것도 조  
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, 여자는 발뽀꿍  
치를 들고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”  
였다는 가부장적 권위를 버리지 않았다.  
하지만 “이제 아버지는 집안 설거지를  
도맡아 하시고 재활용 분리수거나 음식  
물쓰레기 버리기 등을 모두 남자들의 몫  
이라 하신다”고 문소리는 말했다.

“놀라운 변화”라고 했다. 이어 “소녀  
가 태어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 
받는다가나 하는 문제에 민감하게 생각



하신다”고 덧붙였다. 영화사를 이끌며  
‘세자매’의 공동제작으로도 참여한 그  
에게 영화는 그만큼 “여러 가지 생각”이  
들게 한 무대가 됐다.

영화사는 남편인 ‘1987’의 장준환 감독  
과 함께 설립해 자신의 딸 이름(연두)을  
내걸었다. 그는 “남편과 함께 앞으로도  
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”라는 짧은  
답변으로 제작자로 나선 배경을 설명했  
다. 그렇게 이어지는, 또 이어가야 할 영  
화 작업의 길 위에는 동료들이 있다.

‘세자매’의 언니 김선영과 동생 장윤주  
에게서도 힘을 얻었다. 문소리는 “지하  
몇 백미터 아래에서 바위를 뚫고 분출하  
는 듯한 김선영의 연기 파워에 마음이 뻥  
뚫려 그를 ‘지하암반수’로 불렀다”고 말  
했다. 특히 김선영은 남편 이승원 감독과  
“두려움 없이 작품과 이야기에 관해 격론  
하더라”면서 “감정을 드러내는 대화가 부  
담스러워 화들짝 놀라 서로 시간을 두는”  
자신 부부와의 달랐다고 웃으며 귀띔했  
다. 장윤주는 “한 번 담비면 조절이 안 될  
정도로 맨발로 덤비듯 뛰어들어 놀라움”  
을 안겼다고 가리켰다.

이들은 극중 어린시절 가슴 깊숙이 파  
고 들어찬 아픈 생체기를 안고 살아가는  
딸들. 이를 넘어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  
으로서 세상이 안겨준 상처를 보듬으며  
끝내 그로부터 헤어나라 애쓴다. 그때  
터져 나오는 객석의 탄성과 눈물은 치유  
의 공감이기도 하다. 문소리는 “정말 배  
우들이 내면의 에너지로 호흡했다. 반가  
운 이야기였다”면서 “여성배우들로서  
일궈낸 흔치 않은, 귀한 작품”이라 자부  
했다.

윤여수 기자 tadada@donga.com

27일 개봉작 ‘세자매’의 주연 문소리, 제작자이  
기도 한 그는 1999년 데뷔작 ‘박하사탕’의 이창  
동 감독에게서 들은 “영화는 다 같이 만들어가  
는 것이다”는 말을 되새겼다.

사진제공 | 씨제스엔터테인먼트

## 연예뉴스 HOT 5

### 영진위, 한국계 대표 배우 200인 선정 해외 홍보

영화진흥위원회(영진위)가 한국영화 대표 배우 200인을  
선정해 해외 홍보에 나선다. 19일 영진위는 “한국영화  
계 대표 배우들의 글로벌 홍보 캠페인 ‘코리안 액티스’  
(Korean Actors) 200을 진행한다”고 밝혔다. 캠페인은  
10년간 한국영화 참여도와 국내외 영화제 수상 기록 등  
을 기반으로 남녀 배우 각 100명을 뽑는다. 평단은 별도  
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제작해 공개할 방침이다. 인물 사  
진 촬영에는 김중만·안성진 작가가 참여했고, ‘전 세계  
에 감동을 줄 배우가 여기에 있다’는 의미를 담은 ‘THE  
ACTOR IS PRESENT’라는 제목의 책자도 낸다.

### 채널A 청춘남녀 관찰예능 ‘프렌즈’ 2월 선포

채널A의 ‘하트시그널’ 제작진이 새로운 예능프로그램  
‘프렌즈’를 2월 선보인다. ‘프렌즈’는 ‘하트시그널’의 전  
시리즈 출연자들이 출연하는 관찰예능프로그램으로,  
청춘남녀들이 어떻게 서로 친해지고 사랑하는지 유쾌하  
게 담아낸다. ‘하트시그널’보다 더 리얼한 일상과 청춘  
의 우정, 연애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.  
‘하트시그널’ 시리즈로 화제를 이끈 오영주, 정재호, 김  
도균, 김장미, 이가흔, 박지현, 서민재, 정의동 등이 출  
연한다.

### 장근석 모친, 역외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 4년

연기자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  
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서울  
중앙지법 형사합의25-3부(권성수 김선희 임정영 부장  
판사)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  
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  
행유예 4년,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. 전씨는 장근석의 전  
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운영하며 아들의 해외활동 수  
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18억  
여원을 탈세한 혐의다.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  
사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.

### 류수영, 첫 단독 MC…‘류수영의 동물티비’ 진행

연기자 류수영이 데뷔 이후 첫 단독  
MC에 도전한다. 류수영은 2월11일  
과 12일 KBS 2TV가 방송하는 ‘류수  
영의 동물티비’를 진행한다. ‘류수영  
의 동물티비’는 전혀 새로운 동물의  
이야기부터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 
진실까지 폭넓게 다루는 프로그램이  
다. 제작진은 “동물애호가인 류수영이 다양한 동물을  
많이 키워왔다. 관련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프로그  
램과 잘 어울릴 것”이라고 밝혔다.

### 한효주, 55억에 산 한남동 건물 80억에 매각

연기자 한효주가 55억원에 산 서울 용  
산구 한남동의 건물을 80억원에 매각  
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. 19일 부동산  
업계에 따르면 한효주는 2017년 5월  
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하 1층, 지상  
2층 규모의 건물을 55억5000만원에 매  
입했다. 최근 이를 매각해 24억5000만  
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. 이에 대해 한효주의 소속사 BH  
엔터테인먼트 측은 “개인적인 사항이라 확인이 어렵다”  
고 밝혔다.

## 안방을 발각 뒤집은 신혜선·권나라 ‘미친 존재감’

‘철인왕후’ 신혜선 시청률 13% 주역  
‘암행어사’ 권나라 능청 연기 엄지척  
여성 돋보이기 힘든 사극서 활약 눈길

연기자 신혜선과 권나라가 인기의 날  
개를 달았다. 각각 주역 중인 tvN 토일드  
라마 ‘철인왕후’와 KBS 2TV 월화드라마  
‘암행어사:조선비밀수사단’의 흥행 주역  
으로 떠올랐다. 여성 캐릭터가 비교적 돌  
보이기 어려운 사극에서 오히려 ‘원랜쇼’  
에 가까운 존재감을 발휘해 더욱 시선을  
끌고 있다.

신혜선은 시청률 13.2%(17일·이하 닐  
슨코리아)를 찍은 ‘철인왕후’ 인기의 핵  
심이다. 현대의 바람둥이 남성의 영혼이

몸에 깃든 조선 철종(김정현)의 부인 김  
소용 역을 맡았다. 몸은 중전, 마음은 입  
담이 거친 ‘마초남’으로 1인2역에 가까운  
캐릭터다.

“나를 버리겠다”는 각오로 이전에 보  
여주지 못한 코믹 연기를 펼치고 있다.  
한복을 곱게 차려입고서는 임금에게 “맞  
장 때?”라고 외치는 등 대사와 몸짓이 드  
라마의 웃음 요소로 꼽힌다. 조정 내부의  
세력 다툼, 궁중 여인들의 암투를 객관적  
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면서 통쾌함도 자  
아낸다.

방송 초반 역사 왜곡 논란을 겪었지만  
시청률을 5%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렸다.  
덕분에 안방극장에서 ‘원뽕 주연’으로 새  
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.

‘암행어사’에서 다모 역을 연기하는 권

나라는 암행어사 김명수, 몸종 이이경과  
어사단을 이뤄 각종 사건을 해결한다. 화  
려한 말발과 담대함으로 온갖 위기를 뚫어  
낸다.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연기를 펼치  
는 능청스러움부터 땅을 구르고 뛰는 액션  
까지 다양한 매력을 뽐낸다. 첫 사극임에  
도 시청자로부터 ‘잘 어울린다’는 호평을  
받고 있다.

김명수, 이이경과 함께 쌓아가는 어사단  
의 팀워크가 인기의 원동력으로 통한다.  
조선 사회의 부조리를 타파하는 속 시원한  
이야기까지 갖췄다. 권나라는 “상쾌하고  
유쾌하게 정의구현을 하는 드라마가 매력  
적”이라며 안방극장 흥행에 자신감을 내  
비친 바 있다. 덕분에 중반부로 접어든 드  
라마는 18일 9.7%로 10%대 시청률을 넘  
보고 있다.

유지혜 기자 yjh0304@donga.com



연기자 신혜선과 권나라(위부터)가 각각 tvN ‘철인  
왕후’와 KBS 2TV ‘암행어사:조선비밀수사단’의 주  
연으로 나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.

사진제공 | tvN·KBS

## 트로트 열풍의 후유증…포맷 놓고 방송사끼리 소송전 불사

“미스트롯·사랑의 콜센타 등 도용”  
TV조선, MBN 상대 손해소 제기  
MBN “전혀 다른 포맷 표절 무관”

결국 우려했던 일이 불거졌다. 방송사  
에 트로트 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치면서  
급기야 트로트 예능프로그램 포맷을 둘러  
싼 방송사 사이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  
지고 말았다.

TV조선이 19일 “MBN을 상대로 포맷

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8일 제  
기했다”고 밝혔다. TV조선은 이날 “자사  
의 ‘미스트롯’과 ‘미스터롯’ 포맷을 MB  
N이 도용해 2019년 11월 ‘보이스퀸’,  
2020년 7월 ‘보이스트롯’을 방송했다”면  
서 “현재는 ‘사랑의 콜센타’를 도용한 ‘트  
롯파이터’를 방송하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  
이에 대해 MBN은 “해당 프로그램은 TV  
조선과는 다른 포맷으로 제작돼 표절과는  
전혀 무관하다”고 맞섰다.

‘미스트롯’과 ‘미스터롯’은 이미 데뷔

한 현역 가수부터 10대 등 다양한 참가자  
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로트 경연프로그램.  
반면 ‘보이스트롯’은 기성 스타들을 출연  
시킨다. 또 지난 연말 방송을 시작한 ‘트롯  
파이터’는 ‘보이스트롯’ 우승자 박세욱과  
김창열이 각각 가상의 기획사를 설립하고  
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트로트 경연을 벌이  
는 방식이다. TV조선의 ‘사랑의 콜센타’는  
‘미스터롯’ 출신 상위 6명의 가수가 출연  
하는 포맷이다.

이번 사태는 2019년 말부터 불기 시작

한 트로트 열풍에 기대 각 방송사들이 우  
후죽순 관련 프로그램을 내놓은 끝에 불  
거졌다. 이에 따라 원인이 한정적인 인기  
트로트 가수들의 겹치기 출연과 이로 인  
한 시청자 피로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임  
없이 나왔다. 지난해 5월에는 SBS ‘트롯  
신이 떴다’와 TV조선 ‘뽕송아학당’ 측이  
김연자·설윤도·주현미 등 가수들과 방송  
시간이 중복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 
했다.
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